



성탄의 축제에 드릴 칸타타 선곡

교회력의 시작은 대강절로부터 시작된다. 처음 6개월은 예수님의 탄생, 생애, 죽음, 부활, 성령의 보내심을 순환한다. 이때를 교회력의 전반 축제기 라고 부르며 오순절까지 이르러 마감된다. 후반기 축제기는 신앙과 생활의 그리스도적 훈련의 큰 주제들을 중점적으로 내세우며 교회의 생활과 성장을 주로 다룬다. 대강절은 연중 최고의 계절이며 4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생각하고 준비한다. 이어 성탄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그의 성육신을 기념하는 기간이다. 1월5일까지의 12일간으로서 크리스마스 후에 한 주일 혹은 두 주일이 끼인다. 이 기간은 교회는 매우 기뻐하는 축제일 이다. 구세주이신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나신 기쁜 소식을 듣고 즐겁게 찬양하는 일로 동이 튼다. 성탄절의 색깔은 흰색이다. 어린 왕의 신적인 위엄과 그리스도의 탄생이 주는 그리스도인의 큰 기쁨을 뜻한다.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마다 성탄절기에 사용되는 많은 음악들이 작곡되고 연주되어왔다. 뉴스레터 이번 호에서는 성탄절 칸타타에 대해서 추천하고자 한다.

(편집부)



우리를 위해 나셨다(크리스마스 칸타타)

크리스마스 칸타타 <우리를 위해 나셨다>는 타이틀곡을 포함해 총 8곡의 합창곡으로 이윤구의 작곡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록된 한 곡 한 곡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상황, 그리고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상황을 다시금 재조명하고 우리를 위해 나신 주님께 지금 이때에 어떤 것을 드릴 수 있을까 한번씩 돌아보며 느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탄생된 작품이다. 도서출판 비엔비에서 출판되었다.

1. 우리를 위해 나셨다(Opening) / 2. 고요한 밤 / 3. 놀라워라 / 4. 어린 예수 / 5. 하늘이 주 영광 선포하네 / 6. 마리아의 노래 / 7. 무얼 드릴까 / 8. 우리를 위해 나셨다(Finale)



사랑의 왕

로저 스트래더(Rodgers Strader)는 뮤지컬 성탄절 칸타타인 "사랑의 왕" (King of Love)은 성탄절 칸타타의 고전 중의 고전이다. 이 칸타타는 전체가 하나의 뮤지컬로 의도되어 있어 약간의 연출지식만 있어도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다. 전체가 12개의 곡으로 되어 있으며 인원이 적은 성가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쉽고 효과적인 곡이다. 중앙아트에서 출판되었다.

1. 사랑의 왕 / 2. 보라, 주 은혜 받은 자여! / 3. 복된 이름 / 4. 죄인들의 구세주 / 5. 쉼 방이 없네 / 6. 잘자라, 거룩한 아기 / 7. 하나님께 영광! / 8. 알렐루야 동방박사들이 노래하네 / 9. 온세상 기뻐하여라 / 10. 사랑의 왕 / 11. 피날레



해피크리스마스

박지훈의 곡으로 2008년 획기적합창세미나에서 소개되어 뮤지컬 칸타타로 한국에서 칸타타의 새로운 혁명을 가져온 센세이션한 곡으로 지난해 많은 교회에서 연주가 된 곡이다. 뮤지컬 요소적인 리듬과 선율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CCM밴드등과 함께 연주되어도 효과적이다. 코러스센터에서 출판되었다. 1. Happy Birthday Jesus / 2. 커다란 별 / 3. 마리아여 마리아여(찬가) / 4. 마리아의 찬가 / 5. 동방에서 온 세가지 선물 / 6. 죽음의 왕 헤롯 / 7. 요셉의 꿈(희상) / 8. 크리스마스 선물 / 9. Happy Christmas

제3차 학술포럼 주제 발표 1 · 이문승 교수

전통적 예배의 교회음악 - 그 당위성과 변화의 필요성

본협회가 주최하는 교회음악 3차 학술포럼이 2009년 2월 26일 아현 성결교회 본당에서 열렸다. 그날 주제발표의 내용을 시리즈로 나누어 장우형 이사의 발표에 이어 이문승 부이사장의 발표내용을 게재 한다. 본 내용은 본협회가 나가려는 교회음악 방향과 내용에서 다를 수 도 있다 <편집자 주>

전편에 이어 계속

3) 교회음악 지도자들은 회중들이 듣기만하는 교회음악-찬양대만이 연주하는 상아탑적인 교회음악의 형상-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또 지나친 설교 중심의 예배도 안 된다. 춤과 연극, 가수공연이 일반화되고 있는 이 때 성가대가 성가곡 한 곡을 부르는 것으로 만족하기 힘든 세상이다.

교회음악은 회중 찬송뿐만 아니라 복음성가, 찬양대의 찬양, 독창자의 솔로까지 모두 포함된다. 교회음악은 회중과 일체감을 위하여 반드시 회중과 더불어 이루어져야 하고 회중의 이해 범주를 떠나지 않은 것으로 하되 품위를 잃지 않은 아름다운 것으로 가꾸어져야 한다.

교회음악은 찬양대원 자신과 회중의 관심을 끌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음악지도자는 많은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며 좋은 음악의 선곡 및 연주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회중들이 성가대의 찬양이 기대되도록 깊은 공감대를 이루어야 한다. 회중을 향하고 약간의 긴장감 있으며 밝고 힘찬 음악을 주로 하되 음악적 효과를 위하여 느리면서도 분위기 있는 음악과 절충해야 한다. 한 가지 종류의 음악



이문승 부이사장
(작곡가, 서울신학대학교 교회음악과 교수)

1. 머리말

2. 살려야 할 전통성과 변해야 할 요소들

- 1) 교회음악은 말씀과 음악의 아름다운 조화
- 2) 교회음악의 신학적 음악적 검증과 선별

은 인간을 목적지향으로 만든다. 그 연주 결과는 인간을 불완전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교회음악은 교회의 전통성이 존중된 회중성을 강조해야 한다. 회중성은 공동체다운 교회음악의 중요한 면모이다. 기법적으로 대중음악적 요소와 완전히 분리하여 생각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예배에 대한 효율성이 고려될 때 가능하다. 회중들이 교회음악 행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도록 교회음악 지도자는 교회음악 프로그램을 배려해야 한다. 그러기위하여 음악 양식 뿐 아니라 연주 양식 및 교육까지도 회중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회중들은 듣건 부르건 찬양시간이 기다려져야 하고 회중들이 찬양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배려가 필요하다.

4) 교회음악은 유행성이나 시대의 흐름에 지나치게 민감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시대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신선한 음악의 소재와 그 방법은 새로운 멋과 흥미를 유발하므로 유익이 된다. 그러므로 항상 교회음악 문화는 질적 향상과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 주변에는 교회문화가 세속적 문화에 비하여 너무

정회원 자격 및 특전 안내

본 협회 정회원의 자격은 무함 세례교인으로서 교회음악에 종사하는 음악대학 졸업자 또는 이사회에서 자격을 인정하는 자가 정회원이 될 수 있으며 정회원이 되시면 아래와 같은 특전이 있습니다

- (1) 본 협회 주최 획기적세미나의 참석시 2만원 할인, (2) 학술포럼 초대 및 논문집 발송
- (3) 성가합창제 초대권 배부, (4) 뉴스레터 발송, (5) 회원증명서 및 회원증교부 (6) 각 종 행사 초청 (7) 각종 인터넷 상담 및 문의 우선권

❖ 정회원의 회비 안내

각 교회에서 찬양으로 헌신하시는 본 협회의 정회원 여러분! 문안과 더불어 주 안에서 더욱 강건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한국교회음악협회 정관에 의하면 정회원은 매년 회비를 낼 때 회원의 자격이 부여됩니다. 본회의 정회원 되시는 분께서는 년 2만원의 회비를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간 : 2009년 12월 25일까지

- 계좌번호 : 국민은행(주성회한교음협) 043-901-04-057611

뒤지고 있으므로 기독교는 흥미를 잃고 있다는 지적을 하는 이도 있다. 교회음악 작품들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 예배는 신선함을 잃는 요인이 될 것이다.

지금 시중에는 '세속음악 분야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기법을 적용하여 음악을 만드는데 우리 찬송가는 오랜 시간에 걸쳐 불렀으므로 신선한 맛이 없어져 예배의 흥미를 잃게 되었다'는 말도 있다. CCM이 한국교회에 지나치게 범람하게 된 이유 중에도 찬송가가 바른 기능을 하지 못한 것이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전통적인 교회음악을 꿈꾸는 분들의 발 빠른 대처와 협조가 필요하다. 시대성에 뒤지면서 혼자 전통을 고수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화살은 당겨졌다. 많은 전통음악인들이 흥미를 끌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열심히 개발하든지 시대가 지나도 오랫동안 향유할 수 있는 아름다움을 끊임없이 보여 주어 전통의 귀중함을 깨닫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과거에는 교회음악인들이 서양음악을 소개하고 이끄는 등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한국교회에 속하고 있는 훌륭한 인재들을 중심으로 하여 교인들을 대상으로 품위를 유지하면서도 실용적인 많은 창작 찬송 또는 성가들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음악은 전통적 찬양에 대한 개념을 확대해야 한다. 사회 환경과 변화에 따른 새롭게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교회음악 프로그램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생활 속에서 자유스러우면서 다양하고, 쉽고도 짧으며 유익한 찬송을 많이 부르도록 생활찬송을 많이 개발하여 수록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가사가 복음적이면서도 음악이 활기차며 흥미로운 편곡 방법을 많이 연구해야 하며 그런 곡을 창작해야 한다.

1895년 베어드 부인(Annie L. A. Baird 1864-1916)이 찬미가에 수록하기 위하여 지은 찬송이 한국인들에게 반응이 좋아, 선교사들은 이 찬송이 전래 없이 한국인의 음악적 성향에 적응한 것을 보고 그 이유를 분석했던 일이 있었다. 쉽게 불리고, 교인들에게 인기가 있었으며, 또 가르치기도 쉬웠기 때문이었다. 즉 한문에서 나온 어색한 말들 대신에 아주 평범한 일상 언어를 구사하여서 글 모르는 할머니까지도 찬송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찬송이 줄 수 있는 인도와 위로의 필요를 느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음악은 영성과 지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조화로운 것이로되 예술적이어야 한다. 세속음악적 요소는 검증이 필요하다.

5) 교회음악의 관점에서 보면 대중음악 안에는 합정과 독소가 있다. 한국교회는 이것을 반드시 짚고 극복해야 한다. 드럼세트 그리고 증폭된 마이크 장치는 교회음악을 대중매체로서 활용하는 도구이다. 이 도구들은 음량과 음질의 원색적 강함 때문에 다수의 군중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데 있어서 힘이 있으므로 그 점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악기는 한 인간의 영적 변화를 목표로 하지도 하지만 대중들의 일체감이나 군중심리 형성, 그리고 대중자세를 상대로 하므로 개인의 감정과 느낌이 무시되는 단점도 있다. 더욱이 예배에서 찬양인도의 수단으로서 드럼세트와, 증폭된 마이크의 큰 소리와 함께 감성의 틀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바꾸기도 한다. 비이성적인 사람에게는 이것이 군중심리로 작용하기도 하고 착각 현상을 경험하게 되기도 한다. 이성적인 사람에게는 반감을 가지게 되거나 냉소하게 된다. 원색적 음악행위가 계속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은 극단적인 두 부류를 낳게 할 것이다.

드럼세트는 음의 크기가 클 수밖에 없다 포르테(f)가 많을 수밖에 없다. 피아노(p)가 감각적이고 소극적이라면 포르테(f)는 적극적이며 외향적 성향이 있으므로 포르테는 더 흥분을 조장한다. 음악은 중성이라 하여 같은 음악기법이라 해도 가사만 복음적일 때 교회음악이 가능하다는 말은 음악언어의 질서를 모르고 하는 말이다.

우리들이 색을 선택할 때 원색에 대한 추구는 다른 색에 비하여 논리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좋아하는 경향에서 출발한다. 그러므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게 된다. 따라서 한쪽에 치우치기 쉽기도 하다. 문제점이나 무리한 점을 지적하여도 좋아하는 경향이 우세하여서 영향을 줄 수가 없다. 교회음악에 있어서는 화성과 악기의 사용을 이에 비길 수 있는데, 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음악에서의 원색적 사용은 원색적 사용은 도덕적 불균형, 판단 기준의 마비를 가져오게 된다고 생각된다. 조미료에 익숙해진 사람을 몸에 좋다고 싱거운 음식을 제공할 때 좋아할 수는 없는 것이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에 맞는 새로운 스타일과 회중성 있는 창작물이 필요하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음악적 요인이 너무 현란하면 상대적으로 가사의 전달은 약화된다는 사실이다.

다음호에 계속

미확인 정회원 안내

아래 명단은 정회원 중 주소 또는 연락처가 바뀌어서 연락이 되지 않는 명단입니다. 본인 혹은 아시는 분의 명단이 있으시면 본협회로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협회 02-3663-0771 임은희 간사)

강경희, 강기원, 강미선, 강성현, 강영미, 강우영, 강은경, 강정옥, 강호원, 고상춘, 고영진, 고종현, 곽종무, 구영진, 권미애, 권순금, 권영철, 기원주, 김경미, 김경옥, 김금숙, 김기선, 김기원, 김기환, 김대건, 김대호, 김동경, 김문수, 김미란, 김미수, 김민경, 김선화, 김성규, 김성수, 김수현b, 김숙현, 김승옥, 김시원, 김애옥, 김영석, 김영현, 김용진, 김용선, 김윤성, 김윤아, 김윤출, 김윤환, 김윤희, 김은미, 김은성b, 김은하, 김재경, 김정수, 김정신, 김정주, 김준국, 김지선, 김지수, 김진민, 김진현, 김창렬, 김창선, 김재연, 김준애, 김태상, 김태현, 김학열, 김현숙, 김현숙, 김현중, 김현철, 김혜숙a, 김혜정, 김혜환, 김효진, 김훈배, 김희정, 나민목, 남덕우, 남 희, 류금열, 류성환, 명안나, 문삼성, 문승상, 문희수, 박경중, 박동희, 박상조, 박순희, 박승호, 박여옥, 박연숙, 박영호, 박용자, 박 율, 박 인, 박인철, 박재동, 박재홍, 박준원, 박천애, 반혜영, 배형도, 백경현, 백철중, 서성록, 서영찬, 소은숙, 손수정, 손원재, 송현숙, 송홍섭, 신승도, 심규정, 심인숙, 안월선, 양부선, 양승미, 양영수, 오금주, 오세용, 오승국, 우영석, 원학연, 유선식, 유 일, 유재철, 유태왕, 윤미정, 윤병춘, 윤숙희, 윤애자, 윤태관, 이건윤, 이경분, 이근택, 이다사론, 이대기, 이두영, 이명국, 이명애, 이미경, 이상준, 이선아, 이상은, 이상훈, 이승현, 이승호, 이신행, 이영진, 이요한, 이용금, 이윤정, 이윤정, 이은숙, 이인갑, 이인주, 이종성, 이종우, 이주영b, 이준기, 이지영, 이진우, 이태일, 이혁주, 이현구a, 이현구b, 이흥섭, 임동철, 임순진, 임영희, 임창은a, 임창호, 임채순, 임형선, 임희숙, 장기욱, 장성주, 장은래, 장은숙, 장 현, 전영실, 전재준, 정경애, 정경희, 정덕현, 정상규, 정소영, 정애림, 정은주, 정창옥, 정태영, 정혜숙, 정희진, 조순자, 조윤경, 지영자, 진규영, 채형석, 천명희, 최금자, 최기욱, 최면호, 최병길, 최성숙, 최성일, 최숙경, 최유찬, 최인숙, 최일인, 최희성, 하철용, 한 진, 한상현, 한선미, 한우숙, 한재열, 한효숙, 함선영, 홍계남, 홍순일, 홍재용, 황명원, 황성호, 황혜영 (887명중 245명) 2009 / 10 / 20일 현재



이 사 동 정

오전독 교문

- 11월 30일(월)~12월 5일(토) 중국 위해분교 세미나및 졸업식

이수철 전직이사장

- 10월1일~10월6일까지 이태리 대사관 초청 크레모나 악기 박물관 참가

박신화 이사

- 11월 1일 100인 성악가의 합창(지휘) 용산 / 전쟁기념관내 용극장 / 7시
- 11월 6일 이화여대 음악연구소 학술대회에서 안산시립합창단 연주 / 이화여대 김영의홀 / 5시
- 11월 18일 에드워드 기지 첫삽뜨기 기념음악회 / 이화캠퍼스악기 연주 / 파주
- 11월 29일 남서울 은혜교회에서 메시아 특강 및 클러닉
- 11월 30일 한신대에서 합창의 역사와 발전법 특강

주성희 재무이사

- 10월 20일 저서『교회음악문헌』(종신대학교출판부) 출판
- 11월 28일 제8회 작곡발표회 <칼빈의 시편가 주제에 의한 피아노 변주곡> /모차르트홀 /오후 3시

고덕환 서무이사

- 11/3 성가합창페스티벌 랍파스콰이어 특별출연(현대성가 포럼 주최)
- 11/26 한국교회음악작곡가협회 주최 신작성가 랍파스콰이어 연주 (예담교회)

이기선 이사

- 2009년 11월17일 고양시립합창단 정기 연주회
해설이 있는 현대 합창 음악으로의 초대

노영아 이사

- 10월 27일 제11회 아가페콰이어정기연주회 / 경기도 문화의전당 대공연장/오후 7시30분11월26일 작곡가 협회 신작발표 연주 / 예담교회
- 11월30일 12월5일 중국 세미나 특강

이보철 이사

- 10월 31일 제 19회 수원남성합창단 정기연주회 / 청소년문화센터 온누리아트홀
- 12월 1일 제 20회 한국감리교 사모합창단 정기연주회 / 연세대학교 콘서트홀

김인주 당면직이사

- 11월 15일 경주 계삼교회 초청연주 / 경주Y소년소녀어린이합창단
- 11월 22일 안강남부교회 초청연주 / 포항야가페합창단
- 11월 29일 경주 구정교회 초청연주 / 경주Y소년소녀어린이합창단

제14회 불우이웃돕기 경기남부 성가합창제 성황리에 마칩다.



"교파를 초월하여 이루어지는 이번 불우이웃돕기 성가합창제를 통하여 우리 모두는 이웃을 돌아보며, 더불어 함께 나누고 베푸는 아름다운 문화를 이 땅에 만들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 회장 인사말 중에서

한국교회음악협회 경기남부지회(회장:석부진)에서 주관한 불우이웃돕기 경기남부성가합창제가 2009년10월17일 군포문화예술회

관에서 군포시와 극동방송, 안양대학교, 안양시기독교연합회, 샘안양병원 후원으로 엘리여성합창단(지휘:김미영), 산본남부교회(지휘:석부진), 새중앙교회(지휘:조향), 영은감리교회(지휘:천도섭), 군포시립여성합창단(지휘:이중대), 은혜와진리교회(지휘:송혜원), 늘사랑교회(지휘:신용란), 지구촌교회(지휘:차성일), 연합합창(지휘:이기선), 합창8팀과 연합합창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부르느자나 듣는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축제의 장으로 막을 내렸다. 초교파적으로 준비하여 열린 이번 성가합창제의 수익금은 불우이웃돕기에 사용되어진다고 한다. 성가제를 위하여 협조해주신 중앙회에 감사드립니다.

한교음협경남지회 회 장 : 석 부 진

한국교회음악협회

- 고 문 : 구두회 객상수 백태현 이관섭 윤학원 김형석 오진득 ● 직전이사장 : 이수철
- 이 사 장 : 박영근 ● 부이사장 : 이문승 ● 시 무 국 장 : 이대규
- 서 무 이 사 : 고덕환 ● 재무이사 : 주성희 ● 감 사 : 박신화 이상길
- 이 사 : 강옥민 객재국 구 천 김동민 김명엽 김성균 김성봉 김영호 김옥자 김은석
김철륜 김희철 노영아 민인기 박창훈 석성한 손호동 안경재 안희복 원성희
여흥은 유병무 유병용 윤의중 윤대빈 윤학봉 이경선 이기선 이동훈 이근엽
이병직 이보철 이상훈 이선우 이인호 임금수 임창은 장우형 전희준 천인한
최광덕 최동규 최원범 최훈자 한태근 홍근옥 홍정표 황철익 (가나다순)
- 당면직이사 : 김인주(포항) 박종혁(대전) 석부진(경기남) 이광수(울산) 장철진(목포) 한창석(인천)
(가나다순)
- 간 사 : 임은희

편집위원연락처

- 위원장 : 김동민 011-477-4488
- 위 원 : 천인한 011-469-5561
- 류현열 011-9903-1537
- 신현민 011-9136-9985
- 원고 및 인터넷문의
conductor@nate.com
- 기획인쇄 : 다자인심포니 02-2279-9387-8
kapa456@hanmail.net